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6월 1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 박 현 옥 -

저는 올해로 결혼한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낯선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을 때는 그 지역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현관문을 열어 놓고 지내던 때라 여러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한번은 정갈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도하는 분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새댁이신 것 같은데, 내일 옆집에서 이 동네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친절하며 신실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때 저는 임신중이었습니다. 그 구역장님은 제가 아이를 출산하자 아기의 내복까지 선물해주며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저를 배려하여 구역예배를 인도해 주시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구역이 바뀌면서 새로운 구역장님을 만났는데, 그분 또한 저를 전도한 구역장님 이상으로 열심히 저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어쩐!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한결같이 아름답고 진실할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은혜와진리교회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일 때라 교회버스를 타고 멀리 안양의 교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

지만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 그 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에 들어서는 성도들로 교회당 앞이 몹시 북적였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 찬 성도들이 시종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인도하시는 조용목 목사님... 저는 장엄한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여성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설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구역장님이 저에게 함께 안내 봉사를 하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수구역장 직분을 받으신 후에 저도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구역장님을 따라서 아직 어린 딸을 데리고 여러 가지 기도회와 전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수구역장님은 제 또래의 젊은 새댁들을 열심히 전도하여 제가 섬기는 구역원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며 전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역예배 때 구역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느라 찬송과 기도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아이들의 장난치고 우는 소리가 한데 섞여서 시끄러우면서도 매우 따뜻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적은 시대에 것처럼 구역예배를 드리던 때가 몹시 그립고 소중하며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후 20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자주 집안에 있을 때에, 교구의 권사님이 오셔서 “구역장님,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어요?” 하며 얼른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안일해진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저를 전도하러 찾아오셨던 구역장님, 그 후 제가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구역장님과 교역자님들, 전도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신 권사님과 구역장님들, 또 열심히

주님과 성도를 섬겨 봉사하도록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어 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척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분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교구의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여성봉사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잘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교회의 봉사 직분을 맡을 때에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는 말씀의 신실함을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는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밖으로 나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밝고 건강한 미소를 띠며 친절과 선행으로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를 받아 처음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그 때부터 권사가 되어 주님의 전에서 즐겁게 봉사하는 이 순간까지,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신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때,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고 영력 넘치는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복돋워 주시고 저의 심령이 부요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2과) 애통하는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 찬송 : 332장(새찬송가 274장), 406장(새찬송가 300장)

우리가 한 세상 사노라면 이별이나 질병, 실패나 근심된 일을 만나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하여 지나친 슬픔에 잠기게 되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육체의 기력마저 잃게 됩니다. 따라서 심신을 피폐케 만들 정도로 슬퍼하는 일은 단연코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은 어떤 종류의 애통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까요?

1.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펜세오’인데,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격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데 쓰였습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인 감상(感傷)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그 사람의 존재를 온통 사로잡는 큰 슬픔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같이 애통하는 자를 지칭하여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라야 죄악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부족하고 죄악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이를 통분히 여겨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죄로 알지 못하고 행해왔던 작은 언행의 실수나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나를 생각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으며,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자,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통절히 느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기까지 통회 자복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사죄(赦罪)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불신 가족과 친척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애통합니다.

또 교회와 구역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거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형제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그 형제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롬 15:1).

더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동족에 대한 진한 애정을 발견하며 이로써 민족 공동체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일천만을 헤아리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신 우상과 미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이며, 북한에는 수천만의 동족이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해 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성도의 애통에 위로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기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 1:3)이시므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적절하고도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죄에 대해서, 완악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실족한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되,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입혀 주심으로 한없는 기쁨으로 찬송케 하시며, 성도들이 불신 가족들을 위해 애통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과 같이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애통할 때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애통할 때 공의롭고 따사로운 공통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는 능하신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애통할 때마다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애통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으며, 또 온전한 위로로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심으로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그 날까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